

과거와 현대의 조화... 고택서 즐기는 문화행사

광산구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 시작

- 월봉서원 요리체험·공연·토크쇼
- 무양서원 인문학 강연 '선비열전'
- 김봉호 가옥·용아생가·장덕동 한옥
- 농가의 사계·음악회... 다양한 행사



▶ 지난해 무양서원에서 진행된 조선 선비의 이랑을 체험하는 프로그램.

우리 지역의 문화재인 월봉서원, 무양서원, 김봉호 가옥, 용아생가 등을 직접 방문해 오감으로 느끼고 선조들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눈길을 끈다.

문화재청이 전국 최초로 '명예의 전당'에 등재한 광산구 문화재 활용사업이 2018년 프로그램 문호를 활짝 열고 국내외 참가단을 모집한다. 올해 월봉서원 활용 프로그램 주제는 '월봉서원, 광산달방하다'이다. 월봉서원을 매개로 과거와 오늘이 만나길 소망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광산구는 문화기획 라우, (재)고대문화재연구원, 협동조합 이공, 극단 열아리, 광산문화원, 디엠씨아트컴퍼니, (사)광주문화나루와 함께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먼저, 월봉유랑단과 함께하는 서원관광축제 '월봉유랑'이 매월 첫 번째 토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한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행사 당일 방문에 신청하면 된다.

'월봉로맨스'는 '월봉유랑'과 연계된 프로그램으로 고택과 퇴계의 교류를 극화한 프로그램이다. 매월 첫 번째 토요일 오후 2시에 만날 수 있다.

월봉서원의 스토리를 담은 사계절 요리체험 '철학자의 부엌'은 외국인 유학생, 다문화가족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4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인형극과 미술 등 놀이와 예술로 배우는 어린이 철학 프로그램 '꼬마철학자 상상학교'는 6세 이상 유치원, 어린이집 단체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3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이 프로그램은 마을과 학교가 함께하는 교과 연계형 현장학습으로 수료생 전원에게 인증서를 수여한다.

공연과 토크쇼를 결합한 인문 프로그램 '살롱 드 월봉'은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오후 6시에 열리며 누구나 참



지난해 김봉호 가옥에서 열린 '농가의 사계' 프로그램 중 '바람결 프로젝트'의 공연 모습.



지난해 '농가의 사계' 프로그램 중 음식체험을 통해 직접 만든 비스킷을 선보이는 아이들.

여할 수 있다. 조선 선비 일상을 체험하는 '선비의 하루'는 초·중·고교생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철학, 인문, 심과 치유가 있는 인문 워크숍 '고봉다움 고봉다움'도 20명 이상 단체를 대상으로 사전예약제로 진행된다.

월봉서원 이안당에서는 차문화, 공방, 공연문화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다시茶時 茶時·공방·살롱'이 준비돼있다.

첨단 무양서원에서는 '도시 속의 무양(무양 in the city)'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다양한 전통놀이 체험과 예절문화 교육을 통해 선비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무양, 청년 선비'는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선비 철학을 공부하는 인문학 강연 '선비에게 길을 묻다-선비열전'은 매달 셋째 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되며 호남 선비문화유산을 답사하는 '선비문화 탐험대-선비의 다리'도 운영한다.

김봉호 가옥, 용아생가, 장덕동 근대 한옥에서도 '광산, 가옥의 사계 4악장'을 주제로 생생문화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김봉호 가옥에서는 계절별 이야기 축제 '가옥 이야기 축제'와 오감으로 사계절을 즐기는 '농가의 사계'를 만나볼 수 있고, 소촌 용아생가는 인문학과 다양한 공연으로 꾸민 '시인의 사계'를, 장덕동 근대 한옥에서는 한옥음악회 '야호! 달빛소나타'를 개최한다.

이밖에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 '광산구 문화유산 여행-열려라 보물상자'는 관내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만나 광주의 문화재를 알릴 예정이다.

내용과 일시, 참여방법은 월봉서원 홈페이지(www.wolbong.org) 광산구 문화예술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62-960-3827.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김성숙 첫 개인전 '찰나에서 영원으로'

29일~4월 10일 진한미술관...40년 작품 활동 갈무리

광주교육대 미술교육학과 교수로 재직중인 김성숙 작가가 29일부터 4월10일까지 개인전을 갖는다.

세계조각·장식박물관 진한미술관 초대전으로 마련된 이번 전시에서 김 작가는 지난 1979년부터 지금까지 작업한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초대전과 그룹전에 자주 참여했지만 개인전은 이번이 처음으로 40여년에 걸친 작업 세계를 갈무리하는 뜻깊은 전시다.

'찰나에서 영원으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김 작가는 주 작업인 수채 추상화를 비롯해 파스텔화, 유화 작품을 선보인다. 또 '토만사' 회원으로 활동하며 꾸준히 작업해온 누드 크로키와 염색 공예 작품도 내놓았다.

김 작가의 작품은 자연풍경이나 구체적인 대상 그 자체보다 거기서 파생된 기운과 감흥,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내면의 움직임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한 추상화가 주종을 이룬다.

태초의 우주 대폭발 에너지를 형상화한 비백연작과 인간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카오스의 상태 등을 묘사한 작품들이 인상적이며 무등산, 백두산 천지, 낯선 이국의 정글 속 신비의 강과 호수 등 다양한 풍광을 역시 그녀만의 시각으로 재해석을 거쳐 전혀 다른 모습들로 화폭에 모습을 드러낸다.

그밖에 다양한 포즈와 얼굴 표정을 가진 인물 여인상과 인도 스케치 사진 등도 선보인다.



'축제'

광주 화우회 회원으로도 활동중인 김 작가는 한일교류전 등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옛 수도여자 사범대 응용미술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사이타마 대학 교육학과(미술교육)에서 석사를 마쳤다. 일본 국립 츠쿠바 대학 예술학 박사 과정을 수료했으며 (사)한국미술교육학회 회장 및 이사장, (사)전국여교수연합회 회장 및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초대일시는 29일 오후 5시. 문의 062-222-007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한중필 작가 봄맞이 야생화 분경전

31일~4월30일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

상록년줄고사리, 거미줄바위술, 호랑이발톱, 검양꽃나루, 비끼난, 바위취, 쯤눈향...

생경하지만 예쁜 이름을 가진 우리꽃 야생화 분경전이 열린다.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은 오는 31일부터 4월 30일까지 야외 너털마당 주변에 야생화 100여점을 전시하는 '봄맞이 야생화 분경전'을 갖는다고 밝혔다.



전통문화의 특별기획전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사진작가이자 도예가인 한종필 야생화 전문가가 정성들여 키워 온 야생화를 직접 제작한 도자기나 목재·석재 수반 등에 담아 선보이는 전시다.

분경 가운데는 약용식물, 관상용으로 인기 있는 산당화 바위나 나무에 붙어 올라가는 상록덩굴나무 등이 눈에 띈다.

한종필 작가는 "화산석, 고목나무를 비롯해 다듬은 돌, 도자기, 분청사기 등을 이용해 흔히 볼 수 있던 꽃에 품위를

입혔다"며 "저마다 매력을 가진 야생화에 어울리는 조형적 연출 방식을 택했다"고 밝혔다.

한편 사진작가, 도예가로 활동중인 한 작가는 2012년 5·18기념관에서 야생화 개인전, 2017년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초대전 '칼로베어란 듯, 붓으로 그려낸 듯' 전시회 등을 개최했다. 문의 062-232-1598.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소리꾼 박해라 '심청가' 공연 내일 빛고을국악전수관

소리꾼 박해라가 오는 29일 오후 6시30분 광주 빛고을국악전수관 공연장에서 판소리 '심청가'를 공연한다.

'심청가'는 '춘향가' 다음으로 예술성이 높다고 평가되며 슬픈 대목이 많아 계면조 소리가 많다. 또 아리리가 많지 않아 소리에 능하지 않고는 심청가를 이끌어 가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박 씨가 부를 대목은 보성소리 심청가 중 '곽씨 부인의 어진 행실을 그린 대목'부터 '심청이 뱃사람을 따라가는 대목'까지다.

소리꾼 박해라는 조상현 선생에게 심청가를, 박지운 선생에게 심청가·춘향가·수궁가를, 전인삼 선생에게 적벽가를 사사하

였고 전남대학교 국악과와 동 대학원을 수료했다.

현재 전통을 바탕으로 대중과 함께 소통하는 국악인으로 여러 방면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전통뿐 아니라 현대에 맞게 판소리를 재해석하는 창극프로젝트 '소리치다'를 결성해 활동 중이다. 전석 초대. 문의 062-350-4557.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www.shinyangparkhotel.com

고객의 행복을 창조하는 곳

무등산의 자연이 아름다운
도심속의 휴식공간
아름다운 야경이 있는
신양파크호텔

신양파크호텔 맞춤 출장파티

교회·성당 웨딩 출장파티, 가족모임, 기업체 등 각종 기념 출장파티를 고객이 원하는 장소와 금액에 신양파크호텔의 연회음식과 분위기를 그대로 옮겨 드립니다.

교회·성당 웨딩 출장파티, 가족모임, 기업체 등 각종 기념 출장파티를 고객이 원하는 장소와 금액에 신양파크호텔의 연회음식과 분위기를 그대로 옮겨 드립니다.

Shin Yang Park Hotel
MEMBERSHIP HOTEL & FITNESS CLUB

(주) 대양인투스 신양파크호텔 Tel. 062-228-4711~2